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5호

2026년 7월 5일(가해)

미사 안내	평 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 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서상순 안나 (808) 285-2379			



오늘의 미사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 1독서 : 역대기 하권 24,18-22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위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2독서 : 로마서 5,1-5	▶ 복음 : 마태오 10-17-22

성가 ▶ 입당 : 287 ▶ 봉헌 : 510, 513 ▶ 성체 : 181 ▶ 파견 : 286

① 7월 19일은 피터 앤 폴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② 7월 19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7월 봉성체 안내

7월 봉성체는 7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7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7월 9일(목) 저녁 7시 미사, 28일(화)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7월 19일~25일)

⑥ 매월 넷째 주 7월 25일(토), 26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복음화 카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 장 14 절)

※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 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7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7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교리실

③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7월 18일(토) 오후 5:30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④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7월 12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⑤ 쏘렉 구역 모임

일시: 7월 14일(화) 오후 3:30
문의: 이명노비오 227-5630

■ 故 박연숙 데레사 자매님께서 6월 24일 향년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7월 15일(수) 10:30 연도: 9:30
자매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공지

※ 날씨 관계로 당분간 제대꽃은 화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금

7월 4/5일 Holy Father(Peter's Pence)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6월 27일/28일: \$6,764(한끼나눔 제외)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314명
	주일헌금	교무금	한끼나눔	특별헌금	
	\$3,190	\$3,125	\$1,774	\$449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 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STEADY AUTO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 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알아둡시다

※ 미사 해설 - 성찬 전례(5) : 감사 기도 중 감사송에 대해서

예물 준비를 마치는 “예물 기도”를 사제가 바치면, 하느님 백성들은 이 기도
에 참여하고, 사제의 기도예 온전히 마음을 모을 것이라는 표시로 “아멘”이라
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사 거행 전체의 중심이며 정점인 감사 기도가
시작됩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삶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영적인 도움으로 특히 거룩한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에
서 그 힘을 얻는다. (중략) 사도의 말씀대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
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골로
3,17) 한다.”

이 부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거룩한 전례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우
리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는 구체적
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연결
시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어 인간
과 세상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봉헌하는 성찬예식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림은 그리스도인이란 선택이 아닌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며 공동체가 바치는 “감사
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감사와 찬
양의 기도를 성부에게 바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
지로 우리 역시 “하느님의 구원 행위에 감사드리는 찬양 기도”로써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며 봉헌하는 감사송은 사제와 회중의 대화형식으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제의 공적 기도문은 함축된 언어를 통
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을 봉헌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비
록 사제가 홀로 바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기도예 귀를 열고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기도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오늘 우리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신 분입니다. 비록 스물다섯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의 믿음과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즈카르야 예언자를 만납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느님을 떠난 모습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도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진리임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체포와 고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화답송의 말씀인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는 바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희망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박해를 예고하시면서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에 끝까지 신앙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 흘리는 순교가 요구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백색 순교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용서하며, 기도와 미사를 삶의 중심에 두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실 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피아노 개인 레슨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